

경제통상 핫이슈

美 스피릿 항공 파산이 글로벌 항공업계에 던지는 함의

- **지난 5월 2일 스피릿 항공이 전 노선 운항을 중단하면서 25년 만에 미국에서 주요 항공사가 문을 닫은 사례로 기록됨**
 - 2024년 11월 1차 파산 신청에 이어 2025년 8월 2차 파산 신청까지 이어졌으며, 팬데믹 이후 누적 손실이 25억 달러를 초과하는 등 만성적 경영난
 - 지난 2월 채권단과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파산 탈출의 발판을 마련했으나, 직후 발발한 이란 전쟁으로 항공유 가격이 두 배 이상 급등하면서 경영 정상화 계획이 좌절
 - 유동성 확보를 위해 5억 달러 규모의 정부 구제금융을 추진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지분 90% 인수' 조건에 주요 채권단이 반발하면서 협상이 최종 결렬
- **이번 스피릿 항공의 파산은 2001년 9·11 테러 직후 폐업한 미드웨이항공 사례와 유사하나 정부 대응은 대조적**
 - 미드웨이항공 역시 고유가와 사업 여행객 감소를 이유로 2001년 8월 챗터11 파산 보호를 신청한 후 기업회생을 시도했으나,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다음날 운항을 전면 중단함
 - 당시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2003년 폐업한 선례에서 보듯, 자구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정부 지원은 폐업을 지연시킬 뿐 근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시사점을 남김
- **이번 파산은 저가 항공사 수익 모델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됨**
 - 저가 항공사는 기본 운임을 최대한 낮추고 수하물·좌석 지정·음료 등 부가 서비스로 수익을 보완하는 구조로, 유가와 탑승률에 따라 마진이 크게 좌우됨
 - 대형 항공사는 프리미엄 좌석·화물·마일리지 사업 등 원가 상승에 따른 충격을 분산할 완충 장치를 가지고 있는 반면, 저가 항공사는 가격에 민감한 수요층을 타깃으로 하므로 비용 전가 능력이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가격 외 차별화 수단이 미흡
- **노선 공급 감소와 항공권 가격 상승이 이미 가시화된 가운데, 이란 전쟁의 장기화 여부가 항공업계의 구조조정을 촉발할 핵심 변수로 부상**
 - 이란 전쟁 이후 두 달 간 미국 국내선 평균 왕복 항공료는 전쟁 직전 대비 약 8%, 국제선은 42% 급등했으며, 항공사들은 노선을 감축하고 수익성 높은 노선에 자원을 집중
 - 전쟁 장기화로 항공유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수익성 악화와 적자 전환에 따른 항공사 간 합병 및 구조조정이 확산될 우려

뉴스 큐레이션

경제·통상 뉴스

美 1분기 GDP 성장률 2.0%로 회복...전망치 2.2%엔 미달

- 지난달 30일 美 상무부가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 2.0% 증가해 직전 분기 0.5% 대비 반등했으며, 정부 지출과 AI 투자 확대가 성장을 뒷받침

※ 원문 링크 : [bloomberg\(4/30\), US Economy Grows Solid 2%, Boosted by Surging AI Investment](#)

美 기준금리 3.50~3.75% 동결

- 지난달 29일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준금리를 3.50~3.75%로 3회 연속 동결했으며, 금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임기를 마감하고 새로 지명된 케빈 워시가 5월 16일부터 의장으로 취임 예정

※ 원문 링크 : [CNBC\(4/29\), Fed holds rates steady but with highest level of dissent since 1992](#)

美 트럼프 행정부, EU산 승용차·트럭 관세 25%로 인상

- 1일 美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무역합의 미이행을 이유로 다음 주부터 EU산 승용차·트럭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나토 주요 회원국들이 미국의 파병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데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됨

※ 원문 링크 : [Reuters\(5/1\), Trump says he will raise tariff on autos from European Union to 25%](#)

UAE, OPEC 탈퇴 선언...중동 질서 지각변동

- 지난달 28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석유수출국기구(OPEC) 탈퇴를 선언했으며, 이는 생산을 확대하려는 UAE와 공급을 줄여 고유가를 유지하려는 사우디 간의 갈등이 이란 전쟁을 계기로 표면화된 결과로 풀이

※ 원문 링크 : [BBC\(4/29\), United Arab Emirates to quit oil cartel Opec](#)

美 상무부, 한국 등 4개국산 PTMEG 반덤핑 조사 개시 공고

- 5일 美 상무부는 독일 화학업체 BASF 미국법인의 제소에 따라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스판덱스·폴리우레탄의 핵심 원료인 PTMEG(폴리테트라메틸렌 에테르글리콜)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를 발표

※ 원문 링크 : [Federal Register\(5/5\), PTMEG : Iniation of Less-Than-Fair-Value Investigations](#)

지역·산업 뉴스

美 국무부 장관, "한국 기업 투자 지원 위해 비자 제도 대대적 개편 중"

- 5일 크리스토퍼 랜다우 美 국무부 장관은 워싱턴DC에서 진행 중인 'SelectUSA' 행사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자 제도 개편 및 전용 취업비자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힘

※ 원문 링크 : [조선일보\(5/5\)](#)

한화에어로, 美 앨라배마에 K9용 공장 계약...현지 생산 속도 낸다

- 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美 앨라배마주 오펔라이카에 K9 자주포의 통합 시험시설을 설립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美 자주포 현대화 사업 수주를 앞두고 현지 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됨

※ 원문 링크 : [한국경제\(5/4\)](#)

애플, 미국 내 주요 칩 생산 위해 삼성·인텔과 협력 모색

- 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주요 기기용 반도체 생산의 TSMC 의존도 완화와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텍사스주 오스틴의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방문하고 인텔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대체 생산처 확보를 검토 중

※ 원문 링크 : [Bloomberg\(5/4\)](#), [Apple Explores Using Intel and Samsung to Build Main Device Chips in the US](#)

현대엔지니어링, 美 텍사스 태양광 발전사업에 3.1억달러 PF 조달

- 지난달 29일 현대엔지니어링은 텍사스주 힐스보로 태양광 발전소(200MW 규모) 건설을 위해 국내외 4개 금융기관과 3억 1,0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약정을 체결하며 북미 재생에너지 투자개발 사업 진출을 본격화

※ 원문 링크 : [현대엔지니어링 보도자료\(4/29\)](#)

호르무즈 봉쇄에 북적이는 텍사스 항구...美 원유 수출 사상 최대

- 3일 CNBC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 수출이 마비되면서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유조선들이 텍사스주의 코퍼스크리스티 항만 등으로 몰리고 있으며, 미국 원유 수출은 4월 하루 평균 약 520만 배럴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

※ 원문 링크 : [CNBC\(5/3\)](#), [U.S. crude oil exports surge to record as tankers flock to Gulf Coast during Iran war](#)

보고서 톺아보기

OECD 분석으로 본 한국 조선업의 현재와 미래

* OECD, 'Peer Review of the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26.4.8.)' 보고서 요약. [원문보기](#)

- **2010년대 중반 불황기 이후 한국 조선업은 디지털·친환경 혁신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선종에 특화하며 경쟁력 유지**
 - 불황기 대응 과정에서 HD현대·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3대 그룹으로 재편되었으며, 이들이 국내 전체 건조량의 90% 이상을 차지
 - 중국의 저가 선박 시장 장악 이후 벌크선 등 범용 선박 및 해양 플랜트 중심에서 LNG 운반선·초대형 컨테이너선(ULCS) 등 고부가 선종으로의 생산 전환 가속화
- **2024년 기준 한국 조선업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과의 수주 및 기술 경쟁 심화로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
 - 코로나19 이후 선박 수요 증가에 힘입어 수주잔량은 회복세를 보였으나, 2024년 글로벌 수주잔량의 약 69%를 중국이 점유하며 16%인 한국과의 양적 격차 확대
 - 친환경 선박 중 LNG 추진선 누적 건조량에서 세계 1위('23년 기준 약 60% 점유)를 기록하고 있으나, 중국이 28%를 차지하며 빠르게 추격 중
 - 최근 중국이 메탄올 등 친환경 선박 수주와 저탄소 기술 특허를 공격적으로 늘리며 기술 격차도 점차 축소되는 양상
- **한국 조선업의 핵심 리스크로 인력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 비용 측면에서도 경쟁력 저하가 지속되고 있음**
 - 조선업 종사자 수는 2014년 203,441명에서 2024년 125,636명으로 약 44% 감소하였으며, 기능 인력 비중은 2024년 기준 27.7%에 불과
 - 주요 조선사들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채용하고 있으며, 현재 주요 조선소 인력의 약 15%가 외국인으로 구성(베트남·필리핀·스리랑카 등)
 - 생산 비용의 경우 한국의 철강 가격은 중국 대비 20% 높고, 인건비는 중국의 약 2.3배 수준으로 가격 경쟁력 열위가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음
- **한국 조선업은 중국의 고부가 선종 추격 가속화와 인력 부족이라는 위협·약점을 동시에 안고 있어 기술 혁신과 동시에 구조적 대응 병행 필요**
 - 정부는 선박 탈탄소화와 디지털 전환을 산업정책의 핵심축으로 설정하고, 9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투자와 함께 AI 기반 공정 자동화 및 스마트 조선소 구축을 통한 생산성 혁신을 골자로 한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을 추진

뉴스라인 스페셜

〈전문가 칼럼〉 미국에서 AI 쓰는 한국 기업이 잊지 말아야 할 것

요즘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만나면 빠지지 않는 얘기가 있다. AI 도구를 업무에 도입했다는 것이다. 채용 스크리닝에 AI를 쓴다거나, 고객 응대에 챗봇을 붙였다거나, 계약서 검토를 AI로 자동화했다거나. 효율이 올라가는 건 맞다. 그런데 그 효율 뒤에 조용히 자라고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곳이 많다. "우리는 그냥 도구를 쓰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조상훈 교수

Neely School of Business,
Texas Christian University

미국의 AI 규제 지형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바뀌고 있다. 숫자부터 보자. 2023년 미국 전체 주 의회에서 발의된 AI 관련 법안은 200개 미만이었다. 2024년엔 635개로 세 배 이상 뛰었고, 2025년엔 전국 50개 주 전부에서 총 1,208개 법안이 발의됐다. 사상 처음으로 모든 주에서 AI 관련 법안이 나온 해다. 그 중 145개가 실제 법으로 제정됐다. 2026년 현재, 45개 주에서 이미 1,500개 이상의 법안이 추가 발의된 상태다. 연방정부가 AI 규제에 소극적인 사이, 주 정부들이 먼저 달리고 있다.

그 흐름의 중심에 텍사스가 있다. 2025년 6월 22일, Greg Abbott 주지사가 HB 149, 즉 '텍사스 책임 AI 거버넌스법(TRAIGA, Texas Responsible Artificial Intelligence Governance Act)'에 서명했다. 콜로라도, 유타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로 포괄적 AI법을 갖춘 주가 됐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텍사스는 규제가 없어서 사업하기 좋다는 인식이 강한 주인데,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이어 AI에서도 그 인식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TRAIGA의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이렇다.

첫째, AI를 이용한 의도적 차별을 금지한다. 인종, 성별, 장애 등 법적으로 보호받는 집단을 AI 시스템이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금지한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의도(intent)' 기준이다. 결과적 차별(disparate impact)만으로는 위반이 성립하지 않지만, 의도적 차별로 판단되면 민사 제재를 받는다. 채용 AI나 대출 심사 AI를 쓰는 기업이라면 알고리즘이 어떤 기준으로 결과를 내는지 문서화해두지 않으면 위험하다.

둘째, 생체정보의 무단 수집을 금지한다. 인터넷에 공개된 이미지나 영상에서 동의 없이 안면 데이터나 음성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고객 서비스에 음성 AI를 도입하거나, 보안 목적으로 얼굴 인식을 활용하는 기업은 반드시 명시적 동의 절차를 갖춰야 한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이니 쓸 수 있다"는 논리는 텍사스에서 통하지 않는다.

셋째, AI를 이용한 소셜 스코어링을 금지한다. 개인의 행동이나 특성을 분석해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로 사회적 불이익을 주는 시스템을 금지한다. 중국식 사회 신용 체계를 겨냥한 조항이지만, 민간 기업의 정교한 고객 분류 시스템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집행은 텍사스 검찰총장이 한다. 30일의 시정 기간이 주어지지만, 시정하지 않으면 건당 최대 7,500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생체인식 데이터 관련 집행에서 6억 5,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낸 바로 그 검찰총장실이다. 게다가 TRAIGA는 시·군 등 지방정부의 별도 AI 규제를 금지하고 검찰총장에게 집행 권한을 집중시켰다.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 대응 창구가 단일화됐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주 차원의 집행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편 연방 차원에서는 반대 흐름도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첫날 바이든의 AI 행정명령을 폐기했고, 하원 예산안에는 주 정부의 AI 규제를 10년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기도 했다. 그러나 상원에서 이 조항이 제거됐다. 주 정부의 집행 권한은 살아있고, 텍사스 TRAIGA는 현재 유효하게 작동 중이다.

실무적으로 텍사스에서 AI를 활용하는 기업이라면 다음을 점검해야 한다. 채용, 승진, 해고 등 고용 결정에 AI를 쓴다면 알고리즘의 판단 근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고객 응대나 보안 시스템에서 음성·얼굴 정보를 수집한다면 명시적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마케팅 자동화나 개인화 추천 AI가 특정 집단을 의도적으로 불리하게 취급하지 않는지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AI 도입은 선택이지만, 그 AI가 만들어내는 법적 책임은 도입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다. 텍사스에서 사업하면서 "AI는 그냥 도구"라고 생각하는 기업에게, 이제 그 도구에도 이름표가 붙고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때다.

주요 경제지표

● 美 주요 경제지표 캘린더

발표 일자	경제지표	실제	전망	이전
4월 28일	4월 소비자신뢰지수(CB Consumer Confidence)	92.8	89.0	92.2
↳ 4월 소비자신뢰지수는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며 전월보다 상승				
4월 30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Initial Jobless Claims, WoW)	189K	215K	215K
↳ 1969년 9월 이후 57년 만에 최저치로, 미국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함을 시사				
5월 1일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ISM Manufacturing PMI)	52.7	53.1	52.7
↳ 제조업 PMI가 4개월 연속 확장세를 이어갔으나, 가격 지수는 2022년 이후 최고치로 급등하며 비용 압력 심화				

출처 : Investing.com

● 주가 & 금리(미국)

- 빅테크들의 1분기 실적 호조가 증시 상승을 견인하는 가운데, 연준의 금리 동결과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으로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며 국채 금리는 상승

구분	05.05	04.21	2W(% ,bp)	04.07	1M(% ,bp)	25.12.31	YTD(% ,bp)
S&P500	7,259.2	7,064.0	+2.76	6,616.9	+9.71	6,845.5	+6.04
국채 2년	3.94	3.78	+16.50	3.83	+11.10	3.47	+47.50
국채 10년	4.42	4.29	+12.40	4.34	+7.30	4.15	+26.30

출처 : Investing.com

● 국제유가(최종가 기준, 단위 : \$/배럴)

- 호르무즈 봉쇄 장기화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로 주요 유종 모두 반등했으나, 미국이 이란과의 휴전을 재확인하고 공세 작전 종료를 발표하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

구분	05.05	04.21	2W(%)	04.07	1M(%)	25.12.31	YTD(%)
Dubai	106.6	94.3	+13.08	121.9	-12.52	61.6	+73.08
Brent	109.87	98.48	+11.57	109.27	+0.55	60.85	+80.56
WTI	102.27	92.13	+11.01	112.95	-9.46	57.42	+78.11

출처 : 페트로넷

● 주요국 환율

- 엔화는 일본 당국의 시장 개입으로 반등했으며, 유로화는 ECB의 6월 금리 인상 시사에 힘입어 달러 대비 강보합세를 유지

구분	05.05	04.21	2W(%)	04.07	1M(%)	25.12.31	YTD(%)
USD/KRW	1,469.4	1,483.6	-0.96	1,500.1	-2.05	1,440.6	+2.00
USD/JPY	157.7	159.4	-1.07	158.7	-0.66	156.7	+0.64
USD/CNH	6.828	6.828	-0.01	6.856	-0.42	6.976	-2.13
EUR/USD	1.172	1.174	-0.24	1.169	+0.25	1.175	-0.26
달러인덱스	98.44	98.39	+0.05	99.86	-1.42	98.32	+0.12

출처 : Investing.com, 한국은행

행사 알리미

한국무역협회, 멕시코 Expo ANTAD 2026 한국관 운영

- 한국무역협회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개최되는 중남미 최대 식료품 유통 전시회인 Expo ANTAD 2026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
 - 올해로 43회를 맞은 Expo ANTAD는 멕시코 소매유통협회(ANTAD)가 주최하는 중남미 최대 규모의 유통·식품 전시회로, 70개국 5만 2,000여 명의 바이어와 1,8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는 B2B 전문 행사
 -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한국관에는 음료, 떡볶이, 라면, 김, 냉동·냉장 설비 등 K-푸드 및 식품 관련 장비를 취급하는 국내 6개 기업이 참가하며, 델러스지부는 멕시코 현지 바이어 매칭 등 전시 마케팅 지원을 위해 참가 예정
- 전시회 정보 안내
 - 전시명 : Expo ANTAD 2026
 - 기 간 : 2026년 5월 19일(월)~21일(수)
 - 장 소 : Expo Guadalajara (Av. Mariano Otero 1499, Guadalajara, Jalisco, Mexico)
 - 한국관 위치 : Salon Guadalajara 전시관 (부스 #506~510, #605~609)



〈2025 전시장 전경〉



〈2025 유럽연합(EU) 부스〉

본 뉴스레터의 구독 신청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구독 취소는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